

개강예배

서울대기독교인연합 개강예배가 3월 27일 월요일 저녁 6시에 학관 라운지에서 열린다. 이번 개강예배의 말씀은 전 서기연 대표였던 임현우 목사가 담당한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이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5절이다. 마친 후에는 식교제가 예정되어 있다.

주요 기사 안내

- 1면 교수칼럼 ... 최영준 교수
- 2면 서기연 대표 이임사 ... 홍원의
신입생 환영 편지 ... 학부모기도회
- 3면 학생기자의 글 ... 장동원 / 문예은
- 4, 5면 선교단체 소개
- 6면 대학촌 선교센터 소식 ... 김인섭 장로
고별 설교문 ... 김병문 교수
- 7면 탄자니아 비전트립 ... 이탄일
- 8면 신앙 OT 사진

교수칼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 22:39)



저는 조경가로 활동하다가 6개월 전부터 농생대 조경학전공에서 조경설계를 가르치고 연구하기를 시작한 신입 교수입니다.

아마도 '조경'이란 단어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허락하는 첫 이미지는 나무식재와 정원관리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것처럼 조경만큼 전문 분야에 대한 오해가 큰 분야가 없을 텐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만한 특별함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기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게 되거나 잠시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조경 분야에 대한 설명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데, 위의 아주 친숙하고 대표적인 두 성경 구절이 의외로 이 분야의 핵심을 대변하면서도, 제가 조경을 통해 확인해나가는 주님의 은혜를 담고 있기에 두 성경 구절을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널리 알려진 말씀이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수월하기도 하지만, 전달하는 메시지에 저의 작은 신앙고백을 담아낼 수 있는 도구로 주신 말씀이라 믿고 있습니다.

조경(造景 Landscape Architecture)의 학문적 정의는 '아름답고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문적·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토지와 경관을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문화적 행위'입니다만, 긴 호흡의 문장하기에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예시를 들어 간단히 말하면 공원, 정원, 길과 광장, 아파트나 리조트 단지 등 외부 공간들을 계획·설계 및 조성하고 연구하는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료하고 시적인 조경의 정의는 "하늘로 열린 거의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 것(Design under the sky)"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그 아래 대지의 공간에서 순서대로 창조하신 대지 위의 거의 모든 것을 설계하는 특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조경이라는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조경 분야가 땅 위에 창조하신 많은 살아있는 대상들을 다룬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하늘 아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자연물이고,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설계하신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더 넓게는 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를 둘러싼 무언가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가는 학문인 건설환경 분야에는 건축, 도시, 토목, 부동산개발, 인테리어 등 많은 전문 분야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콘크리트의 인공구조물을 기반으로 하고, 이 중에서 열린 하늘 아래 살아있는 생명과 자연을 주제로 다루는 전문 분야는 조경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요소들과 그 모든 관계들이 - 빛과 그늘, 하루와 계절의 변화, 바다와 땅과 공중의 동식물을 포함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그들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와 환경까지 - 조경이 다루는 대상이 되고, 그를 통해 구현해내신 창조 때 자연 상태의 온전함을 우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연구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감사히 삼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조경작업의 지향점이 단순히 어떤 수준의 나무를 몇 그루 심는 것으로 얼마의 공사비를 투자한다는 정량적·개발 중심적 사고를 극복하게 해줄 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무비판적인 절대적 존중을 우선하는 보존 중심적 입장이거나 자연을 타자화하여 거리를 두는 인본주의적 자연관에서도 균형을 찾게 합니다. 풀 한 포기 심더라도 그 식물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을 따른다면 어떤 환경과 시간의 변화를 통과하며 생명력 있는 경관을 조화롭게 연출해 나갈 수 있을지에 조경작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되기에 큰 은혜와 비전을 선사해 줍니다. 창세기 1장 각 절의 말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주님의 흐뭇한 시선을 우리가 프로젝트와 연구를 통해 지향하는 같은 목표로 삼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경관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연스러움'의 경관, 즉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경관의 상태를 알게 하

시는 것도 큰 감사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근본과 만들어 나갈 미래를 통하게 하는 주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 동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지속 가능함의 추구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어 기후변화시대에 대응해 나가는 축복의 지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람 중심의 환경도 자연물 중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갖출 때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생이라는 주님의 선물과도 같은 시공간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존재로 다듬어져 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표이니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주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고, 말씀대로 사는 핵심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마태복음의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가 핵심이 된다고 하신 하형록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고 자주 묵상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참 희생하는 태도로 삶을 살면 주님께서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선물(favor)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결국 날개를 달아주신다는 간증의 말씀이었습니다. 팀 하스(Tim Haahs)라고도 알려진 하 목사님은 저와 유사한 건축설계 분야에서 젊은 시절 매우 앞서나가는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밤낮없이 전문 분야에 집중하던 30대 초반에 우연히 심장을 이식하지 않고는 생명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말로만 들어도 어려울 것 같은 심장의 이식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였을 때, 기증자를 기다리며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시며 주님께 받았던 성경의 요체가 바로 마태복음 말씀으로 요약되는 이웃에 대한 희생의 마음이었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상당 시간 시한부의 신분으로 기다린 후, 이식이 비로소 가능해졌던 심장을 같은 병원에 더욱 위급한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는 희생을 실천하십니다. 물론 길지 않은 미래에 정말 귀한 또다른 심장이식 기증자를 허락해주셔서 건강을 회복 하였고, 비즈니스로도 복귀하십니다.

회복 후에 하 목사님은 이웃을 향한 새로운 참 희생의 삶의 자세를 실천하기 위해 회사의 정체성과 목표를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로 삼으셨고, 주님은 몇 가지 도전을 주십니다. 당시 미국경제는 리먼 사태를 겪는 불황 시기였고 규모가 상당했던 디자인 오피스의 경영자로서 직원 감축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놓이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 목사님은 비축했던 예비비를 다 소진해가며 가까운 이웃인 직원과 그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회사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하십니다. 그 끝에서 주님은 다른 주에 위치한 일이라 수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남부 도시의 프로젝트를 허락하시는 Favor를 보여주시며 목사님의 이웃을 향한 희생과 실천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문제가 시공간에서 발생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이 걸린 심각한 분쟁의 갈등 상황에 놓이시게 됩니다. 이 극단의 대립 상황에서도 다른 책임 주체도 이웃으로 여기고 다른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이웃을 품는 마음으로 본인이 먼저 책임을 다하고 상호신뢰를 촉진하는 선택을 통해 오히려 관계자들에게 신앙고백의 기회와 다른 프로젝트의 협업 기회로 이끄시는 간증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목사님이 집필하신 『P31』과 『Favor』 두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저는 하 목사님처럼 이웃을 당신의 몸보다 더 사랑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더 우선하며, 회사의 책임보다 더 희생하지는 못하였지만, 모든 프로젝트 및 연구의 시작과 끝에 있어서 이웃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는 노력은 지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웃에 대한 배려와 희생의 마음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임하게 되면, 어려운 여건이나 복잡한 조건을 해결할 지혜를 내려 주심을 자주 경험해 왔습니다. 일례로, 몇 년 전 한 대기업 연구원 외부 공간의 시설물 설계를 맡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충청도 어느 산 중턱에 있는 단체 바비큐 공간 옆에 대형 해먹을 띄워놓아서 특별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기획되었는데, 몇 차례 방문해도 도무지 생경한 시설물인 해먹을 어떻게 사용할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사문화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상력을 북돋기 위해 제 아이들이 키즈카페에서 그물 놀이터와 큰 해먹을 이용하던 경험을 마음에 품었고, 당시 우리 직원들 몇

명도 그 공간에서 어울린다면 어떤 공간이 될지를 상상하며 설계를 디벨롭해 나갔습니다. 1차 공사가 끝난 주 토요일, 마침 가족들과 방문할 기회가 생겨서 함께 그물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의 감동이 담긴 사진은 아직도 제 데스크톱 바탕화면으로 두고두고 봅니다. 몇 달 뒤 팀원들과 다시 찾은 그곳은 봄의 기운을 품고 있었고, 서로의 사진을 찍으면서, 준공 전 작업했던 투시도 속 인물들의 위치에 서서 상상이 현실이 된 감동을 즐겼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생소한 산속 경관이 우리 기억에 선명히 남을 의미 있는 자연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 이용할 이웃들에 대한 기대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신촌에 위치한 한 문화공원을 설계할 때에는 불특정한 이웃들이 이용하는 공원의 특성상, 이웃을 위한 존중과 배려를 더욱 깊이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공원을 처음으로 설계하고 지어볼 수 있는 첫 기회였기에 맨 처음에는 디자이너로서의 자아가 투영된 계획안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 욕심이 공공공간을 이용할 이웃들보다 앞선 결과였던 것이지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심의에서도 수정을 요구받게 되어, 그 지역의 이웃들에 대한 스튜디오부터 설계를 재시작했습니다. 연구해보니, 제가 기존 이 공원의 주인과도 같은 다양한 성격의 이웃들을 얼마나 간과했는지를 깨달았고, 이곳에서 쉼과 교류를 누리던 이웃들을 위한 쉼터와 무대를 조성하여 설계안을 마무리했습니다. 선도적 설계를 향한 열망을 가진 젊은 조경가가 놓칠 뻔 했던 지역 주민을 품고자 하는 초심을 일깨워주었던 작업으로, 우리의 작업에 배려와 포용이 동반되어야 함을, 그것이 동네 이웃의 삶을 조금이나마 풍요롭게 하는 선한 영향력의 근간임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타국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더욱 공감이나 상상하기 어려운 먼 거리의 이웃을 위

한 작업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완전한 이방인의 입장에서 문화적 레퍼런스를 찾아 적용하거나, 일반적인 문화적 코드를 적용해 보편적인 설계 제안을 하면서 고유성이나 지역성이 약해질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둘씩 완공되는 공간들을 통해 확인하는 흥미로운 사실은 멀리 있는 이웃의 삶에도 우리네 보통의 정서와 유사한 보편적 생활 양식이 있고, 그들만의 문화와 맥락이 그 장소를 특수한 개성으로 재창조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상하이의 한 상업 광장이 저녁 시간만 되면 아파트 마당 같은 분위기로 그룹 댄스를 추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하는 모습은 하나의 조경작업이 일종의 삶을 담은 그릇이 되어 제3의 이웃들의 삶을 담아내고 있음을 확인했던 사례입니다. 이렇듯 제3의 이웃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는 “보기에 좋은” 모습을 목도하는 보람은 조경작업을 통해 느끼는 최고의 카타르시스이자 이웃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기쁨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조경작업을 통해, 1단계 이웃인 가족들과 팀원들을 위하는 태도로 2단계 이웃인 사용자가 될 시민들을 배려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면,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작은 동식물부터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무수한 범주의 3단계 이웃들이 사랑을 주고받는 공간으로 성숙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호못하신 자연과 사람의 경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향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최영준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

서기연 대표 이임사



2022년 서기연 대표를 맡았던 홍원의(동물생명공학 16)입니다. 작년 겨울,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받게 된 대표 제안을 두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먼저 기억하고자 합니다. 분주한 마음을 갖지 말 것에 대한 경고, 매일 주님께 삶을 의탁할 것에 대한 강조, 그리고 하던 일을 꾸준히 계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지나빛에도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답답한 한 해였습니다. 상급자가 사정을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았음에도 그를 신뢰하고 복종해야 하는 상황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지 않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설령 그를 신뢰하더라도 말입니다. 특별히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령이 가만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면 성격상 더욱 참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끝나고, 비대면 상황들이 대면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공동체들의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점점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뭔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힘을 내서 으쌰으쌰하

면 될까요? 혹 제가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제가 공유하고 전파해야 할 연합의 비전이 있을까요?”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늘 같았던 것 같습니다. “자리를 지켜.” 자리를 지키는 것은 참 보잘것없고 기본적인 일처럼 느껴집니다. 무엇인가 능동적인 역할을 맡을 수 없어서 그나마 자리나 지킨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면, 다른 말씀하심들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길이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힘을 의지하여 망아지처럼 들이받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잊어버리고 배재하며 놓는 것도 아니라, 그 기간이 내 예상보다 많이 길지라도 끈기있게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뢰 할만한 분이십니다.

앞서 말했지만, 차라리 시켜만 주신다면 뛰는 것이 더 즐거웠을 것입니다. 대표를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명령이 버거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들을 꾸리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의원의의, 개 종강예배, 새내기신앙OT가 대면 사역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비대면 시기에 비해참여 인원이 확대되면서 몇몇 서기연의 형제자매들이 이런 연합사역의 의미나 유익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기연에서 보고 배운 전통, 받고 경험한 사랑과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제가 말해야 하는 다른 대답도 분명히 있었는데, 스스로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라 말을 피했습니다. 어차피 명령을 따를 거라면 기쁨과 평안으로 했다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글을 읽으

시는 독자분들께서 혹 서기연의 형제자매들이시라면 뒤늦게나마 그 형제자매들에게 했어야 하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연합은 무슨 유익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지켜야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우리 단체에 유익이 될지, 할만한 여유가 있을지 판단하는 것을 조금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를 사랑하시며, 서울대기독인 연합도 여전히 당신의 계획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신원하시며,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장 다음 학기에 어떠한 일들이 서기연에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어떠한 소명이 부여될지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도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뢰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 마음에 위로를 준 말씀을 인용하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룻 2:11-12).

홍원의(동물생명공학 16)

신입생 환영 편지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학부모기도회를 섬기고 있는 전은숙 집사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난 뒤 맞는 출구의 빛이 얼마나 반가운지, 아마도 지금의 여러분들은 그 환한 빛 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겠죠. 저도 자녀의 합격통지를 받았을 때가 생생합니다. 힘든 관문을 통과하고 맞이하는 환희와 감격이 여러분의 대학 생활 첫 출발선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마치 하늘의 은총이 나를 향하고 있는 듯한 기쁨,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의 일상에 거듭되길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올해 신입생들은 그 어느 해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여러 행사가 재개되고 무엇보다 입학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학부모기도회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신입생 어머니들의 발걸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이 가치가 있듯, 당연한 일상이 이리도 감사가 가득한 날로 변화된 것은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얻은 우리의 수익이라 볼 수 있겠죠.....

누구나 각자의 힘든 시간들을 견디며 이 자리에 온 거겠죠. 앞으로 서울대 캠퍼스에서 만날 새로운 만남들,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합니다. 전심을 다해, 젊음의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온전히 삶을 드릴 수 있는 특별한 날들을 만끽하시길 학부모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학부모기도회는 서울대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기도 모임으로 200여명의 학부모

님이 매일 밤 10시, 단체톡방을 통해 자녀와,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해, 한국교회와 기독 청년들을 위해, 서울대 복음화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번 정기기도모임을 갖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목요일/오전 11시/대학촌교회)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들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린다고 믿으며, 매월 2회 대학촌 선교센터에서 마중물기도회로 뜨겁게 모여 눈물로 다음 세대와 기독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들께 이 기도회를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첫 학부모기도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전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도 많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새로 맞이하는 이 한해도 변함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자녀들을 서울대에 보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축복과 함께 저희에게 서울대를 위해 기도할 사명을 주신 것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서울대에 속한 모든 영혼들을 우리의 자녀처럼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먼저 저희의 이기적이고 편협하며 무정한 마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기정하여 주시어 회개하게 하시며,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



2023년 학부모기도회 임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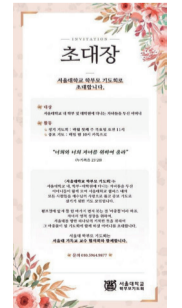
학부모기도회 자녀들 특송-서울대학교 찬양선교단



정기기도회 예배 후 단체사진



학부모기도회 찬양팀



학부모 기도회 초대장

량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서울대의 기독교수업들과 기독교학생들, 교직원들과 모든 복음으로 섬기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그들이 자기들을 이곳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빛으로 소금으로 이 관악 골짜기를 비추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몹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매일, 또 매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서울대에서도 이루어지며,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인 어머니들의 헌신과 믿음을 기억하시고, 자녀들과 가정도

불들어주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 저희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학부모기도회를 섬기는 임원진들을 축복 하시며 감당할 힘과 지혜, 그리고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찬양과 반주로 수고하시는 지체들과 기도문자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내리는 상급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듣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빛으시어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여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이런 복된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신 주의 은혜로 인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부모기도회

학생기자의 글



성경을 처음 읽던 때였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었던 저는 참 황당한 이야기라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이적들은 그렇다 하고 받아들이거나 넘길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갑자기 보여주셨다고 사지로 나아가는 이들이 잘 이해하지 않

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위험한 선교지로 나가시는 선교사분들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믿음을 말하는 분들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즉흥적인 감상들에 괜히 하나님 예수님을 끌어들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되고, "진리는 나의 빛"에서 기사를 담당하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동행하는 분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쇼부 봐야(거래 내용 등을 합의 본다는 뜻의 일본어 유래 은어)" 하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주님께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기도했고, 새벽기도에도 나갔습니다. 그렇다보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들어주시면 교회에 잘 출석하였고 들어주지 않으시면 몇 주씩 주일예배에 나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제 돌아해보면 참 어리숙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으니 자연히 이렇게 된 것이겠지요.

특히 지난해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쇼부"를 봐주지 않으

학생기자의 글



디트리히 본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은 책을 읽을 당시에는 새로움에 대한 감사함을, 글을 쓰는 현재에는 함께 함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해준 책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서는 본회퍼의 사상에 공감하시는 분도, 그렇지 아니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신학적 논리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기에, 본회퍼의 모든 의견을 비판적으로 관철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책이 2학기의

제 삶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위 본문과 관련지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책의 1장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된 것은 전혀 자명한 일이 아닙니다.'로 장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도원적 은둔생활이 아니라,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로 이어지는 구절은 책이 한 페이지 채 넘어가기 전에 등장하며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학부 입학 전까지 저는 동갑내기 크리스천 친구를 거의 뒤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책을 처음 읽었던 22년도 9월, 저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비밀상적'인 일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비밀상적' 사건들로 인하여 삶이 얼마나 풍족해지는지도 8월 말에 진행된 202122 MT를 통해 막 확인한 참이었습니다.

한 학기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과연 얼마나 주위

동행하며 나아가기

셔서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제가 즉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은 이미 계획해둔 백 가지 사이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 가지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계획을 많이 세우는 편입니다. 일주일 치의 소비계획도, 졸업까지의 계획도 미리미리 짜두는 편입니다. 국외 여행 계획은 늦어도 여섯 달 전에 짜기 시작하여 30분 단위의 일정도 계획해둬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이루어졌을 때의 만족감으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계획이 어그러지면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이런 저의 수많은 계획이 지난해 8월, 한 번에 어그러졌던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여름에 동유럽과 이탈리아 여행 중이었습니다. 특유의 계획력과 서구 문화에 대한 관심 덕에 아주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코스를 구성했었습니다. 한국인이 없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 인생 계획을 채워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지요. 저는 이 여행을 다녀오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아침 신장결석이 도지고, 쉽게 배출되지 않고 감염을 일으키며 급히 귀국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서도 빨리 회복되지 않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도 뒤로 미루어야 했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에 교회 출석도 드문드문, 말씀은 거의 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저라도 공허히 여기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병을 깔끔하게 치유해주시고, 아픈 마음으로 방황하던 저를 잊지 않고 불러 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다시 오게 하시고 저에게 말씀을 읽을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게 보여주셨던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아래 구절이었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을 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고린도후서 1:17~18)"

사도 바울의 말에서 그동안 제가 세웠던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늘 계획을 세웠고, 계획을 많이 세웠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제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툭 던져놓을 뿐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자 하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저의 오만과 독선이었을 뿐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저의 전심으로 믿지 못하였기에 그랬던 것이겠지요. 하나님을 단순히 거래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드렸던 찬양과 예배가 아니었는지 부끄러움만 남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알아갑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동행하며 그 지혜를 구하여 나의 계획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일요.

봄입니다. 저는 기도로 새로운 몇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고민하던 교육 분야의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기획 중인 원고는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을 가득 안고 잠시 서울을 떠나왔습니다. 다만 이제는 예전처럼 저 혼자 골몰하다가 다 마친 후에 주님께 통보하지 않으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물어가며 차근차근 동행하려고 합니다.

장동원(중어중문 19)

Dietrich Bonhoeffer의 성도의 공동생활을 읽고

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소중히 여겼을지요. 2학기 중간고사 간식 나누 사역을 하기 위해 농기연 학우분들과 서기연 동방에서 모인 기억이 납니다. 학기 초의 분주한 마음을 안고 동방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동방에서 기타 소리와 함께 익숙한 찬양이 흘렀습니다. 찬양을 흥얼거리다가 문득 찬양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고, 가능하다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싶었습니다. 이후 학기 초의 스케줄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점심시간 확보가 가능해지자, 저는 2학기 동안 '서기연 동방의 NPC'라 불릴 정도로 동방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삶이 되고, '비밀상'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처음 느꼈던 크리스천 사이 교제의 소중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주신 시간들을 '자명'하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를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또한 '첫째,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거룩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 인간적인 현실이 아닌 영적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를 통해서 이상과 인간적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균형점에는 예수님께서 주재하셔야 한다는 점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영적인 공동체에서는 아가페가 숨는다.'는 말도 펍 기억에 남습니다. C.S. Lewis의 '네 가지 사랑'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가페, 에로스의 성격이 미묘하게 다르면서도 신앙 공동체의 특질을 다루는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뜻을 같이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 13:3)에서 등장하는 사랑, 즉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으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타인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이들은 제가 공동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사랑의 마음이 과연 '영적인' 사랑인지 '인간적인' 사랑인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랑의 색깔을 되짚어보게 합니다.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타인과의 경계를 존중하며, 타인과의 온전한 교제를 우리를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려 합니다.'는 이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구절입니다.

지면이 부족한 관계로 모든 내용을 다 담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크리스천 공동체의 개개인으로서 교제 이전에 기억해보면 좋을 내용을 소개함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후속 장 '함께 하는 날'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일상의 잡다한 일들로 인해 짓눌리거나 괴롭힘 당해서는 안 됩니다.'를 언급하며 아침 시간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해 말합니다. 학업과 여러 활동들로 인하여 지치기 쉬운 신학기 초, 예수님 안에서 내적 위로와 성장,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의 화합의 기쁨을 누리시는 서기연의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잠언의 구절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거룩한 현실로 나아가는 서기연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예은(산림 21)

선교단체 소개

네비게이토 선교회(The navigators)

단체 대표: 박태준(사범대학, 010-2528-0567)
SNS: navigators.or.kr
모임 장소와 시간: 학생회관 608호
한줄 소개: To know Christ and to make Him known

서울대학교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 28:19)”하신 말씀을 따라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며 지상사명을 이루는 일을 목표로 사역합니다. 서울대 사역으로 생겨난 제자들을 통해 오늘날 전국 각 캠퍼스와 직장에서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나아가 해외에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있습니다.

“(눅2:52)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처럼 우리는 성경공부와 암송, 전공 공부, 운동 교제를 함께하며 예수님을 본을 따라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원하시는 신입생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두루선교회

단체 대표: 왕다솜 (재료공학부 대학원) 010 5017 0297
인스타그램: @duru_campus
모임 장소와 시간: 각 캠퍼스 혹은 온라인
사이트: http://www.durums.org

한줄 소개: 저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가는 두루선교회입니다!
단체 소개: 두루선교회는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마4:23) 사역을 하신 것에 근거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 성취(마28:18-20)에 대한 비전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사명을 가진 선교단체입니다.

저희는 매주 소그룹별로 온/오프라인 제자훈련 모임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배우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개인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주시는 은혜를 나누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서의 제자훈련뿐 아니라 교회, 학원(중/고등학교) 사역, 그리고 졸업 후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며 유기적인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이 해산의 수고가 동반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평신도 제자화에 힘쓰는 두루선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서울대 성서학당 IBS(Institute of Bible Study)

단체 대표: 김용섭 (재료 18)
SNS: 없음.
문의: 김용섭(대표) 010-5360-7476, 최윤화(회계) 010-5286-6512
모임 장소와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공과대학 강의실(33동 328호) 혹은 비전하우스(봉천로 533), ZOOM
단체 한줄 소개: IBS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삶의 선택과 고민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성서학당(Institute of Bible Study) 'IBS'입니다. 서울대 성서학당 IBS는 서울대 캠퍼스 선교와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모여 성경 말씀과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말씀의 빛 안에서 돌아보며 간증하는 관계 중심의 캠퍼스 선교 단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전도와 제자 양육을 통해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대학생활에서 겪는 삶의 고민을 진리의 성경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뭇을 찾고 진실된 관계를 배우며 알아가기 원합니다.

화요일 저녁 6시에는 정기모임으로 성서강해와 교제를 나누며 분기별로는 섬김과 나눔의 여러 활동과 수련회를 함께 하며 삶의 간증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주변의 지체를 돌아보며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서학당 IBS!! 누구라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길 소망하는 여러분을 성서학당 IBS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한사랑선교회(The Love Mission)

대표 & 연락처: 박승경간사 (010-6372-6128)
모임장소: 학생회관 421호, 월6시
단체 한줄 소개: 3L(Love, Light, Life) 복음은 모든 증오를 녹여버리는 사랑(Love)이며,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light)이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영원한 생명(Life)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4:8)

서울대에서 1971년 태동된 공동체로 청년의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한, 유일한,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여 부르신 자리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가진 예수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사역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예배자, 전도자, 양육자, 사명자로 세우는 양육과정과 기도모임, 매주 캠퍼스 노방 찬양예배,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중심으로 “한국어교실”을 열어 한국어를 도와주며 친구관계를 맺고 사랑의 섬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대로 함께 자라가는 이곳으로 2023 새내기 여러분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ABSK

단체 대표: 서홍준
SNS: 인스타그램 @absk_seoul
모임 장소와 시간: 주중 점심 모임 (시간과 장소는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바랍니다.)
한줄 소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

ABSK는 Koinonia라는 헬라어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를 통해 성경의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코로나 동안에는 서울 내의 대학들이 함께 온라인 비대면 모임을 가졌습니다. 매주 소규모 식사모임, 소규모 기도모임을 가지고, 학기 중에는 매주 성경공부, 방학 동안에는 수양회, Movie Night 등 다양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Harvard, MIT, UCLA, University of Alaska 등 미국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매년 전세계 ABSK가 함께 모여 선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전세계 ABSK가 모여 “What do you value most?” “Why is life so hard?” “What are you waiting for?” 등의 주제로 ABSK Forum을 가졌습니다.

CCC(Campus Crusade of Christ)

단체 대표: 김지민(물리천문학부 18, 010-7387-5282)
SNS: 인스타그램 @snu_ccc
모임 장소와 시간: 학생회관 420호,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한줄 소개: 전도, 육성, 파송을 통해 캠퍼스 복음화를 꿈꾸는 CCC

특징: CCC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을 세워 캠퍼스 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대학생 선교단체입니다. 'Movements Everywhere(어느 곳에서나 영적 운동을 일으키기)'라는 비전 아래 전도, 육성, 파송의 단계를 거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영적 리더로 훈련 받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채플'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선후배 간의 '순모임'을 통해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크고 작은 '수련회'를 통해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며, 얼어붙은 캠퍼스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훈련 받고자 한다면 CCC에서 함께해보아요!!

CMI(Campus Missions International, 국제대학선교협의회)

대표: 김태현(화학 16, 010-2266-3514), 조지은(사회학과 18, 010-3115-0913)
SNS: 인스타그램@cmi_snu
한줄 소개: “Be a good worshiper, make a good worshiper!”

CMI는 성경적 가치관을 지닌 미래 지도자를 세우는 복음주의 대학생선교단체예요. 1961년부터 50여 년간 한국과 세계캠퍼스 선교를 위해 힘쓰며, 국내외 세계 캠퍼스를 성경말씀으로 섬기고 있어요.

우리 서울대 CMI는 '서울대를 위한 CMI, 예수의 CMI'의 목표 아래,

- 1) 인격적인 일대일 성경공부를 통한 삶의 변화 체험,
- 2) 매주 캠퍼스 예배를 통한 캠퍼스에서의 신앙고백,
- 3) 학기별 수양회와 캠프, 방학 중 해외 비전트립 통해 폭넓은 교제와 영적성장,
- 4) 큐티모임과 독서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Be a good worshiper, make a good worshiper!”의 비전을 갖고, 우리 삶의 일부인 캠퍼스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성장하고, 참 예배자를 세우는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CMI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대학생활을 만들어가 봐요^^

ECU(Elgrace Campus Union)

대표: 최민호 (기계18)
SNS: ecu4u_official
모임 장소와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수서주공종합상가 303호
한줄 소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ECU

ECU(Evangelical Christian Union)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는 목표를 가지고 캠퍼스 복음화에 힘쓰는 모임입니다.

캠퍼스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전하며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모여 캠퍼스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주중에도 함께 모여 혹은 각자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캠퍼스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힘쓰고 있습니다.

ECU는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각각의 지체들이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ESF(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단체 대표: 김승찬(약학 18, 동작ESF), 백항목 간사(동작ESF, 01099381041)
 조민수 간사(관악ESF, 01064203730)
SNS: dongjak_esf, gwanak_esf
모임 장소와 시간: ESF동작회관 목요일 오후 7시, ESF관악회관 목요일 오후 6시 30분
한줄 소개: 말씀의 사람들 ESF입니다!

ESF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근거로 설립되어 캠퍼스 복음화를 목표로 하는 학생 선교단체입니다.

여러 대학교가 모인 연합동아리이고 서울대는 동작ESF(서울교대, 중앙대)과 관악ESF(경인교대, 숭실대, 서울한영대, 충신대)에 속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에 회관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캠퍼스에서 셀모임과 온라인 밤 QT, 일대일 성경공부를 합니다. 방학에는 전국수양회에 참여하거나 캠프를 가서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한국기독교학생회)

단체 대표: 민태원, 통계학과, 18, 010-3365-4513
인스타그램: @snu_ivf
모임 장소와 시간: 학생회관 416호,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일상과 서울대학교, 한국 사회와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머리와 마음과 몸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공동체, IVF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한국기독교학생회 IVF는 “캠퍼스와 세상속의 하나님나라 운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복음으로 변화된 학생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서울대학교 IVF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가치를 추구합니다.

- 하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한다.(호6:6)
 - 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섬기는 사랑을 배워간다.(요13:14-15)
 - 셋. 우리는 인생과 세상에 대해 자유롭게 고민하며 성경적 대안을 찾아간다.(빌1:6-7)
 - 넷. 우리는 대학생활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롬12:15-16)
- 서울대학교 IVF는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관계맺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일상의 영역들을 성경적으로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IVF와 함께 해요~

JDM(Jesus Disciples Movement)

대표: 허우진 (산림과학부 대학원 20, 010-4010-8403)
SNS: 인스타그램 @jdm_seoul
한줄 소개: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자(마28:19)

JDM은 예수제자운동 (Jesus Disciples Movement)의 약자로 강원도 춘천에서 시작하여 주님께서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마 28:19)는 비전을 중심으로 모인 작은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JDM은 연합동아리로 서울대는 충신대, 숭실대, 백석예대, 가톨릭대, 장신대와 함께 <서울 남부>로 모여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JDM에서 주로 하는 활동으로는 매주 화요일 7:30에 줌으로 진행되는 채플이 있습니다! 채플은 먼저 찬양 후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1부 순서 후에, 교제를 중심으로 하는 2부 순서가 진행됩니다. 2부 순서로는 경건 목표 적고 나누기, 서로에게 편지 써주기, 가치관 경매 등 여러 가지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JDM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활동은 제자훈련(TTS)인데요, 주로 2학년부부터 하나님 앞에 경건을 통해 바로 서며, 섬기고 리더로서 서도록 훈련받습니다. 또한 간사님, 리더 지체들 모두 소그룹이 진행되는데, 소그룹은 셀모임처럼 함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이 외에도 줌으로 하는 성경통독 모임, 독서 모임 등 서로 직접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교제하고 말씀을 보고 삶을 나누며 함께 자라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정말 정도 많고 따뜻한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요!

JOY(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단체대표: 이민석(산림과학 21, 010-8567-2546), 구본혁(화학생물공학 18, 010-4303-0427), 박세민(외교학 18, 010-6501-4849)
SNS: 인스타그램 @joymission_snu
모임 장소 및 시간: 학생회관 422호,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정기모임
한줄 소개: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 spell JOY!

조이선교회(JOY)는 예수님을 첫째로(Jesus first), 이웃을 둘째로(Others second), 나 자신을 마지막으로(You third) 둘 때 참 기쁨(JOY)이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JOY는 1958년 한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50여개의 대학교 캠퍼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전한 초교파적 복음주의 선교 단체입니다.

매주 목요일 정기 모임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자발적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성경 공부와 신앙 성장에 필요한 양육 및 교제 모임을 진행합니다. 학기 중에는 MT, 소풍, 책 모임, 여행 등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모임을 통해 캠퍼스 안에서 신앙을 가진 여러 선후배 및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수양회와 리더 훈련, 방학 연합 지부 모임이 열리며, LOVE PROJECT(LP)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해외 선교 사역을 통해 선교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활동의 최우선으로 두고, 선후배의 모습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배우고, 삶을 나누며 함께 즐거운 공동체를 누리는 조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DI(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

대표: 장유민(아동가족 대학원20, 010-2329-9975), 민소연(국어교육 대학원 20, 010-5679-8652)
SNS: 인스타그램 @snu_ldi
모임 장소와 시간: 자연대 26동 B102호 (변경가능), 오후 8시
한줄 소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세계 열방에 전하는 제자, LDI

서울대 LDI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마태복음 28:19-20)에 순종하여, 영성과 인성, 전문성을 갖춘 사회 각 분야의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성장하기 위해 훈련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입니다.

LDI에서는 1:1 양육은 물론, 캠퍼스 모임과 정기적인 기도회, 전도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를 돕는 멘토와 든든한 신앙의 선배, 동료들이 함께 합니다. 지체들과의 교제와 간증, 나눔을 통해 아가페 사랑을 누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돕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계 선교를 이루는 전문인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고 싶다면, LDI와 함께해요 ♡

UBF(University Bible Fellowship)

대표: 유창성 (생명 20, 010-7527-9992)
SNS: 인스타그램 @snu_ubf3
한줄 소개: 성경 공부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Your Best Friend, UBF입니다!

1. 깊이 있는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선배와의 매주 일대일 성경공부, 그룹 바이블 스터디, QT모임 등 다양한 방식과 소재를 통해 말씀을 풍성히 배우고 누릴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에서 나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성경공부를 최우선으로 두고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2.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배우기는 하지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말씀을 형식적으로만 공부한다면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UBF에서는 말씀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개인적으로 글로 정리하며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크리스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3. 즐겁고 진솔한 교제가 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선후배, 친구들과 함께하는 봄 가을 MT, 여름 수양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 UBF로 오세요~!

SFC

단체 대표: 이다은 (영어영문 21, 010-6444-9273)
SNS: @snu_sfc
모임 장소와 시간: 학생회관 419호, 목요일 오후 6시(변동 가능)
한줄 소개: SFC(학생신앙운동)는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적 삶을 추구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 '큰모임'으로 다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과 나눔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소그룹 모임인 '작은모임' 시간에는 책 모임, 악기 교실, 맛집 탐방 등 다양한 활동으로 긴밀히 교제합니다.

방학에는 '대학생대회'로 전국 SFC 운동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교제하며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배우는 시간을 가진답니다! 또한, 'MT'와 자율적인 '성경통독모임'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쌓아갑니다.

학내뿐만 아니라 학외에서도 서울 지역 각 학교의 SFC 운동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강예배와 새내기 어울마당, 신앙강좌 등으로 함께합니다. 또한 졸업하신 동문 선배님들과의 식사 모임을 통해 비전을 나누고 고민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신앙인의 삶을 함께, 그리고 힘껏 누릴 수 있도록 운동원 모두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의 SFC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YWAM(Youth With A Mission, 예수전도단)

단체 대표: 이조은(우주항공20, 010-2098-2687)
SNS: 인스타그램 @snuywam
모임 장소와 시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학생회관 및 강의실
한줄 소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서울대 예수전도단

"To Know God, To Make Him Known!"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라는 모토 아래 사역하는 YWAM은 우리의 삶, 캠퍼스, 그리고 온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배하는 초교파적이고 국제적인 선교단체입니다.

학기 중 저희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캠퍼스모임으로, 목요일 6시 30분에는 서울의 모든 대학생 YWAMer들과 함께 캠퍼스위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외에도 소그룹 모임, 묵상 모임, 책 모임 등 다양한 모임으로 가족됨과 하나됨을 누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방학 중에 저희는 국내 혹은 해외로 전도여행을 떠나며 전도여행이 어려울 때에는 재정을 모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여름 Mission Conference(MC)에서 전국의 YWAMer들과 함께 예배와 강의, 소그룹과 교제를 통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탄자니아와 동북아시아, 국내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발걸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대학촌 선교센터 소식

서울대학교 선교 후원과 기도의 밤

2월 25일 오후 4시에 대학촌교회에서 제22회 서울대학교 선교 후원과 기도의 밤 행사가 열렸다. 기독교대학촌선교회가 주관하는 본 행사는 서울대 선교에 뜻을 함께 하는 분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의 서울대 선교사역을 보고하고 새해의 비전을 나누며 기도하는 자리이다. 임우열 목사(대학촌교회)가 마태복음 5장 13~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고,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이다은 중앙위원, 대학촌교회 선교팀 양현숙 선교사, 본지 이경진 편집인, 기독교수협의회 박동열 교수의 사역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송재준 교수의 인도로 서울대선교,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를 위한 합심 기도를 드렸다. 서울대 선교를 위한 헌금의 시간에 헌금송은 서울대학교 학부모 기도회가, 헌금 기도는 이윤선 권사가 담당하였다. 기독교대학촌선교회 성기문 이사장이 감사의 인사를 한 후 서울대학교 캠퍼스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이길 바라며 봉헌된 헌금을 기독교수협의회에 전달하였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위축되었던 캠퍼스 선교 사역이 다시금 활발해져서 서울대 캠퍼스에 복음의 꽃이 활짝 피고, 선교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캠퍼스 선교를 위해 늘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대학촌선교센터 '그들' 기독 토크 콘서트

대학촌선교회는 대학촌선교센터 '그들'에서 기독 토크 콘서트를 운영하고 있다.

학문 및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기독교적 실천의 길을 찾고자 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본 학문적 탐구 내용 공유와 실천을 위한 나눔의 시간인 기독 토크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강연 및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연사와 청중이 상호 소통하며 삶의 문제들을 기독교적으로 해결해가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 번째 기독 토크 콘서트가 2023년 2월 11일(토)에 있었다. 서울대학교와 대학촌 선교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하신 유은상 장로(대학촌교회,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명예교수)를 연사로 모시고 '대학 선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할레대학의 경건주의 운동에서 배운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유은상 장로는 서울대학교 선교의 역사와 1694년 설립된 할레(Halle) 대학의 경건주의 운동이 종교개혁 이후 침체된 교회에 어떻게 새로운 활력과 개혁을 가져다주었는지를 강의하였고, '대학선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에 대한 답을 콘서트에 참여하신 분들과 같이 토의하면서 찾아보았다.

두 번째 기독 토크 콘서트는 경제관에 대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열심히 살아도 봉급으로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서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시간으로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의 세상에서 재테크라는 명분으로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의에 맞는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재테크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등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이야기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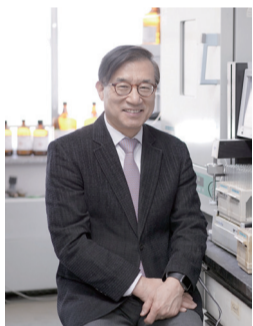
- **주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이 있다
- **강사:** 김학철 교수/목사(연세대학교 학부 대학 기독교 교양학, 유튜브 잘잘법 방송 출연)
- **일시:** 2023년 4월 1일(토) 오후 2-4시
- **장소:** 대학촌선교센터 그들(관악구 신림로 108 운용빌딩 4층, 서울 신성초등학교 옆)
- **대상:** 기독교적 관점의 경제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탐구하고 싶은 대학생, 청년, 장년

김인섭 장로(대학촌교회)



서울대학교 선교 후원과 기도의 밤

고별 설교문



사도행전 27장에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으로 배에 오르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로마행 항해로부터 시작하여 결국 많은 서구 나라들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었고, 이 복음이 지구를 돌아 미국, 그리고 반대편 한국까지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대장정의 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이사랴에서 터키 서해안 항구도시인 아드라뎬데노로 가는 배였습니다. 이 배를 탄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의 행선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여행에서 아시아에서 값싸게 산 물품들을 잘 팔아서 많은 이익을 얻을 희망으로 배를 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세계는 로마로"라는 기치 아래 로마에 가서 입신양명하여 전 세계를 호령하는 영웅이 되어 보리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983년 여름, 김포공항에서 노스웨스트항공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로 가던 첫 여행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달리 저는 자유로운 몸으로, 부푼 꿈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시애틀에 내렸을 때, 제가 갈아탈 뉴욕행 비행기가 먼저 떠나버리는 바람에 공항 근처 호텔에서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약 40년 후에 여기 서울대에서 교수로 정년퇴직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두 어디론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 이 서울대라는 배도 여러 곳으로 가려 하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꿈에 그리던 로마 여행을 위해 어떤 신분으로 이 아드라뎬데노 배에 올랐나요? 그 시대에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예루살렘 율법학 최고 권위자 가말리엘 교수에게서 최고의 수재라고 칭찬을 받고, 전도양양한 청년으로 출발했던 Saul씨. 그러나 천막 짓는 일을 해가며,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던 예수라는 사람

내 배는 어디로?

을 전한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행 배에 오르는 모습" 아마 이렇게 기사를 적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은 그가 그의 가슴에 품은 복음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이었던 서울대에서의 근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 나의 배는 어디로 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또 여러분들께도 같은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후 제일 먼저 갔던 구브로 살라미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또 그다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에 대해 풀어 증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13장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든 이방인에게든, 그의 간증, 설교, 또 그가 죄수로서 자신을 위한 변론에서도, 항상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날마다 강론하여,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 매일 성경 공부하러 오라고 하면 다 도망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 사도가 두란노서원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증거하는 일이 힘차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했을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행 19:20)"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또 교회가 능력 있게 자랄 것입니다.

둘째, 그는 천하를 뒤엎는 사람(천하를 어지럽히는 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접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귀신을 쫓아낸 후, 종의 주인들이 그를 관원들에게 끌어간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성을 소동케 하여 바울 일행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을 발견치 못하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지르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하고 고발하였습니다.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변사 더들로가 "이 사람은 염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라고 송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크리스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질서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뒤집어서(upside down),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사랑의 원리로 바꾼다는 면에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입니다. 크리스찬이 있는데 세상의 일들과 방식들이 옛날과 같이 하나도 바뀐 것 없이 돌아간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고전 15:31에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이 사도 바울같이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 동역자와 다툰 사건까지 자세히 기록하였을까요? 그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나중에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고 그가 사역에 유익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딤후4:11).

또 그는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그가 안질 혹은 간질병, 혹은 어떤 풍토병을 갖고 있지 않았나 제안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해 눈이라도 빼어 줄 정도로 사랑했다고 하는 표현에서 그가 안질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육체의 가시가 제하여 지기를 하나님께 세 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12:7-9) 라고 말씀하며, 오히려 그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됨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시가 있

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상처 입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위로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의 말년의 모습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지향하는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밧로 밧은 땅은 전 세계의 지극히 적은 일부분이었지만, 그는 세상을 바꾼 사람, 천하를 뒤엎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은 2,000년 동안 선포되고 외쳐져 온 메시지이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37년 동안 황지의 예수원을 떠나지 않았던 토리(Reuben Archer Torey III) 신부님은 신앙은 모험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면에서 신앙은 모험입니다. 자신이 익숙하게 살고 있는 세상의 원리에서 발을 떼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것은 진정한 모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험은 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어릴 때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늘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저의 가정의 문제는 늘 저의 수치였고, 저의 제일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러

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저의 가는 길이 바뀌었고, 저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행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봉사나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어떤 연약함의 이유가 있나요? 성경의 위인들 모두 다 실패와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사역에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핑계만 대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모두 어디론가 열심히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대인들은 모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사는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남들보다 열등의식이 더 많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엎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매일 자기를 죽이며 은혜를 사모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해 그의 인생 끝까지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은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흠뻑 누리는 새 한 해가 되기를 축원 드립니다.

김병문 교수(화학부)

탄자니아 비전트립



안녕하세요? YWAMer 이탄일입니다.

저는 지난 겨울방학에 YWAM에서 19일간 탄자니아로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탄자니아에서의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날, 손을 씻으려던 저는 수압이 너무 세서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밀로 흘러가 버리는 물이 아까워 수도를 닫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물과 먹을 것, 입을 것에 부족함 없이 지내면서도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순간들이 부끄러워져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여름 MC(YWAM 수련회)에서 탄자니아를 향한 마음을 받아 탄자니아 전도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살면서 아프리카에 갈 일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반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간 썬빙프렌즈(SFI) 탄자니아 지부에서는 시골 지역을 돌아다니며 식수가 없는 마을의 학교에 지하수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2주 동안 총 13개의 학교를 돌아다니며 지하수 탐사를 진행하고 그곳에서 만나는 학생들과 함께 과학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저희 팀은 지역의 빈 학교 건물 안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 씻을 물과 부엌에서 사용할 물을 직접 길어와야 했습니다. 물을 길으러 학교 우물에 가보니 실제로 집에서 쓸 물을 길으러 20L짜리 물통을 들고 온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 살짜리 아이도 들고 가갈래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서 놀랐습니다. 20kg짜리 물통을 들고 고작 운동장을 가로질러 오는 데도 킁킁대며 고군분투했습니다. 옆에서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20kg짜리 물통을 양손에 들고 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웃의 어려움에 무관심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은 매우 밝고 순수했습니다. 크고 뚱뚱뚱한 눈망울로 피부색이 다른 우리를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피죄죄한 옷을 입은 아이도 있었고 짝이 안 맞는 신발을 신은 아이도 있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다들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뛰다가 신발이 벗겨져도 발이 아픈 줄도 모르고 까르르거리며 뛰어다녔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간 에어로켓과 과학 캠프 재료로 아이들과 즐겁게 보냈습니다. 짹짹한 햇빛 아래에서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시는 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역 중간에 현지인의 도움으로 흙으로 지은 현지인 집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흔쾌히 집 안으로 들여주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우리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집 안의 가구라곤 침대 두 대가 전부였고 그 외에는 모두 시멘트로 덮인 맨바닥과 벽뿐이었습니다. 판자로 덮인 지붕 사이로 햇빛이 미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 해맑은 표정으로 저희를 다른 방으로 인도해주는 집 주인 아주머니를 보며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누렸던 것들, 다양한 상점과 편리 시설이 있는 나의 동네, 여러 가구와 깔끔한 화장실이 있는 나의 집이 떠오르며 또다시 한 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탄자니아에 있으면서 현지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그곳에서 워십, 스킷 드라마, 현지어 찬양으로 예배를 섬겼습니다. 탄자니아에서의 예배는 어떨

까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 예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찬양 시간에 다들 전심으로 기뻐 춤추고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 시간에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고 여기 모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는 제가 회중 앞에서 간증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와서 하나님께 느꼈던 혼란스러운 감정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 대학 생활 동안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리고 탄자니아에 와서 느낀 하나님의 성품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비록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고 피부색도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탄자니아 전도 여행의 키워드를 뽑자면 ‘가진 것에 감사’와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탄자니아에 오기 전에는 아프리카 아이들은 그저 ‘불쌍한 아이들’이고 도와줘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이들의 삶을 직접 보고 느끼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한국보다 열악하고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들과 비교하며 불평하지 않았고 그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해맑은 미소로 자신의 자리에서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들은 결코 불쌍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보기에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물며 나에게서는 어떻게 될지’라는 마음을 주셨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사랑을 참 좋아했는데요, 저희 팀이 학교에서 과학 캠프를 진행하고 마칠 때 떠나기 전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꼭 사랑을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기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겐 봉지 단위로 파는 사랑을 구매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어떤 선생님께 사랑을 갖다 드렸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저에게 집에 자녀가 세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사랑을 세 개를 더 드렸지만, 이곳에서 사랑이 그만큼 귀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들이 봉지 단위로 파는 사랑을 사서 먹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버려지기도 하던 사랑들이 이곳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간식이라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누려오던 은혜들이 참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 시간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잠깐 다른 세계에 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동참할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저는 이 전도 여행의 시간이 그저 좋았던 추억,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거름으로 삼아 이 비전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탄일(생명과학 18)

신앙 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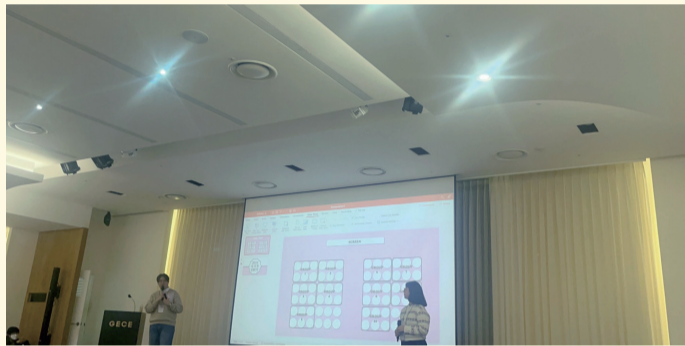
식교제 중 공기연 소개



저녁 식교제 시간



신앙 OT 마스코트 물범 세트



단체 소개 영상 관람



둘째날 익명 토크쇼



레크레이션 중 인생그래프 그리기



방탈출 중 휴식시간



새내기 환영의 현장



축복의 시간



프로그램팀의 협업